27th Annual COMMENCEMENT
PRESIDENTIAL INAUGURATION

World Mission University **Special Newsletter**

Saturday, June 2, 2018 | at 1:00 pm | The Oriental Mission Church

CONTENTS

“ 부단한 몸부림이 뒤 따라야 ”

송정명 박사
월드미션 대학교 총장

오늘 우리는 스물 일곱 번째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예년 보다 졸업생 들이 많습니다. 93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에벤에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생각 하면서 큰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동시에 오늘 졸업을 하면서 학위를 받고 사역지로 나가시게 된 졸업생 한 분 한 분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리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학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물질로 도우시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가족 여러분들 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학우들을 지도하시면서 몸부림 치는 깊은 기도와 지도를 보내 주셨던 교수님들과 겸손한 마음으로 학우들을 섬겨 주셨던 교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물질적으로 도우시며 기도해 주셨던 이사님들과 기도 후원자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사역지의 형편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캠프스 안에 있을 때 보다 더 한 변화에 놀라기도 할 것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의 바람이 우리 사역지에 불어 온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변회의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 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몸부림이 뒤 따라야 될 것입니다. 안일과 나태로는 따라 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터 다시 시작 한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고 시작 하셔야 됩니다.하니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인 디아스포라 지도자 양육에 주안점을 두어 왔으나 이제 부터는 장막의 터를 넓혀 글로발화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라티노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 아프리카 지역 지도자를 양육 할 계획이 있습니다. 동시에 13억 인구가 있는 중국 영혼을 위한 지도자 양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 지도자 양육도 함께 병행할 것입니다.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가 미국 교육부가 공인하고 있는 ATS정회원이 된 것도 이런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뒷바침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인가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문적인 검증과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학계와 세계 교계로부터 인정을 받아온 학교이기 때문에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오늘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단히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학위 수여식을 마친 후 학교 정관에 따라 총장 임기를 내려 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20여년간 신실하게 섬겨왔던 임성진 부총장을 총장으로 추대하게 되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제가 총장으로 섬겼던 6년간의 섬김의 기간은 제 평생에서 가장 보람된 사역으로 기억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 해주셨던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동역 해주셨던 교수진들과 말 없는 가운데 저를 섬겨 주셨던 교직원들과 학우들에게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도우심의 은혜가 월드미션대학교 위에 계속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축하합니다 "

_ 총 93명 _

대학 (39명)

과정	명단
AACC (6명)	김세리 김언석 배차냥 이명숙 이정애 조종숙
AABS (2명)	박광임 조현경
BACC (11명)	강지원 권주연 박한경 송다솔 신새라 신에스더 이기자 이양한 임은혜 정다슬 정철호
BAM (4명)	권 향 김태혁 박선민 이미란
BABS (16명)	강인제 고은혜 곽선화 김명신 김 솔 김유진 민창식 신주영 심혜숙 이건철 정재훈 정혁진 정현정 조범래 진형순 하충남

대학원 (53명)

과정	명단
MACC (20명)	강명금 권춘임 김미옥 김민선 김성심 김현미 도현아 민향숙 박정란 박춘화 손미영 우신영 원성구 이근춘 이미영 이상천 이수진 임소영 장인경 하영순
MAM (8명)	김선화 염영옥 이재수 이정민 이찬영 전은선 정희란 황신애
MAT (7명)	김대호 백케이트 서진상 심동호 이규환 임영자 지련의
M.Div (17명)	강정완 김남일 김학철 박노현 박면호 백광세 새드카(조)재옥 손성덕 안케네스 양보경 이광욱 정승현 정일용 조재영 진성훈 허정덕 황요셉
D. Min (2명)	서상민 정대성

재학생 송사

최비키
학생회 부회장 (2017 - 2018)

'졸업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4년 혹은 더 많은 기간동안 생업과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며 드디어 졸업의 시간을 갖게 되신 졸업생 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재학생이기에 누구 보다도 학업의 힘들었던 점을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3년 미국 서부의 한국 기독교 신학대학 최초로 ATS(신학대학원 협의회)의 인준을 받은 "월드미션대학교"에 발을 들여 놓게 하시고 교수님들의 열정으로 많은 과제물에 파묻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의 입에서 힘들다란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공부하다 보니 지금은 감사하다는 소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는 시기에 우리 월드미션은 계속해서 학생들이 끊이지 않았고 '풀러신학교 다음으로 공부하기 힘든 학교' 라는 말을 다른 신학교에서 전학 온 학생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학생들 모두의 마음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제물,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을 치르며 학기가 시작되면 도서실에 코박고 살아야 할 정도고 조금만 다른데 신경쓰면 과제물이 밀려서 제시간에 제출을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되어 모두 안타까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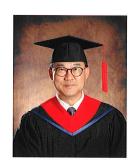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공부와 훈련으로 학생들은 지성적으로 성숙하여 '말씀으로 변화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란 월드미션대학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어져 갔습니다. 채플 시간에는 영성있는 목사님들을 초빙하여 설교를 통하여 지성 뿐만 아니라 영성이 풍성해 지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때론 교수님들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 지며 새롭게 결단하며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고 인성이 변화받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학우들과의 수련회를 통하여 친밀감을 느끼며 교제의 폭을 넓힘으로 월드미션인으로 하나되는 시간도 갖었습니다.

총장님, 부총장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과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은 학생들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아무 불편함이 없이 학업에 정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입니다.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어디에가든, 무엇을 하든 학교에서 훈련받고 공부한 데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확신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는 월드미션대학교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놓아 주셨든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월드미션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 하는 사역자 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찬양 사역자로서, 상담자로서, 선교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입혀준 옷을 입고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인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모든 졸업생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합니다!

졸업생 답사

M.Div. 안 케네스
졸업생 대표

이사야 6장 13절에, "그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9장 29절에도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거룩한 씨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난 의를 얻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졸업을 맞이해서 93명의 새로운 졸업생이 탄생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졸업생들은 분명 주님께서 이 땅의 남은 그루터기로 부르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시대에 번창하는 과학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등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점점 사랑이 없어져 가는 세상에서, 각자의 사명에 따라 '거룩한 씨'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야합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지도 않으며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 왕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그 분의 신부와 혼인 예식을 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신부는 주님께서 입게 하신 빛나고 깨끗한 흰 예복, 즉 흰 세마포를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인 우리들은 세마포로 상징되는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대부분의 많은 졸업생들처럼 저도 풀타임 워커로 사역자로 또 학생으로 몇 년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렌지카운티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두번 엘에이에 수업 들으러 오는 즐거움이 없어진 것이 아쉽습니다. 수고하시고 애쓰셨던 오늘 졸업하시는 모든 졸업생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축하드립니다. 또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수년동안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의 의를 가르쳐 주시고 또 실제로 삶의 본이 되시며 다양한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양떼들을 목양하고 이끌어 가나 등의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소 부담이 되는 때도 있었지만 빡빡하게 철저하게 긴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숙제와 시험, 과제물들을 요구하신 월드미션대학교의 교육 정책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 적절한 온라인 교육으로 먼거리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ATS 인준을 받을 정도로 격조 높은 커리큘럼과 배움의 질을 유지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남은 그루터기로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인사이트를 주셔서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앞길에 축복의 기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학위수여식

2018년 6월 2일 (토), 오후 1시 | 인도(Presider): 임성진 부총장

입장	(Opening Procession)	순서담당자, 교수단, 졸업예정자
개회선언	(Opening Announcement)	인도자
기도	(Prayer)	이금희 교수
학사보고	(Academic Report)	인도자
학위수여	(Conferring of Degrees)	총장, 부총장, 이사장
	[Degrees Granted: AACC, AABS, BACC, BAM, BABS, MACC, MAM, MAT, M.Div, D.Min.]	
축가	(Congratulatory Song)	김경옥, 장슬기 학우
총장훈화	(President's Farewell Address)	송정명 총장
졸업생답사	(Graduate's Response)	안케네스 학우
헌신의기도	(Litany of Dedication) ·········· 졸업생, 회중, 교수단 ··········	인도: 김명신 학우

인도자: 이제 학위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졸업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를 당신의 뜻을 따라 인도하소서.

인도자: 졸업생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졸업생: 교회와 세상을 위한 말씀중심과 선교중심의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인도자: 성도 여러분, 졸업생들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회 중: 편협한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온 세상이 치유함을 받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인도자: 졸업생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졸업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당신의 충성스런 종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인도자: 존경하는 교수님들, 오늘 졸업하는 저희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단: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를 떠나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떠나는 졸업생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줄 수 없었고, 저희들도 여전히 필요한 용기, 지혜, 믿음, 겸손, 온유, 따뜻한 마음을 저들에게 풍성히 주시옵소서.

인도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전 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경건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학위수여 대상자 명단

AACC (6명) 김세리 김언석 배차냥 이명숙 이정애 조종숙

AABS (2명) 박광임 조현경

BACC (11명) 강지원 권주연 박한경 송다솔 신새라 신에스더 이기자 이양한 임은혜 정다슬 정철호

BAM (4명) 권 향 김태혁 박선민 이미란

BABS (16명) 강인제 고은혜 곽선화 김명신 김 솔 김유진 민창식 신주영 심혜숙 이건철 정재훈 정혁진 정현정 조범래 진형순 하충남

대학(39명)

MACC (20명) 강명금 권춘임 김미옥 김민선 김성심 김현미 도현아 민향숙 박정란 박춘화 손미영 우신영 원성구 이근춘 이미영 이상천 이수진 임소영 장인경 하영순

MAM (8명) 김선화 염영옥 이재수 이정민 이찬영 전은선 정희란 황신애

MAT (7명) 김대호 백케이트 서진상 심동호 이규환 임영자 지련의

M.Div (17명) 강정완 김남일 김학철 박노현 박면호 백광세 새드카(조)재욱 손성덕 안케네스 양보경 이광욱 정승현 정일용 조재영 진성훈 허정덕 황요셉

D. Min (2명) 서상민 정대성

대학원(54명)

총 93명

수상자 명단

총 장 상: 안케네스, 김선화, 강지원
총회장상: 박노현, 이광욱
교 수 상: 정일용, 정승현, 김대호, 권춘임
부총장상: 이미연, 정다슬
ABHE상: 강인제, 신에스더
이사장상: 강정완, 정재훈
동문회장상: 고은혜, 박선민

졸업생 현황

과정	AACC	AABS	BACC	BAM	BABS	MACC	MAM	MAT	M.Div	D.Min	Total
2018	6	2	11	4	16	20	8	7	17	2	93
총계	6	2	61	23	328	45	64	60	328	6	922

총장 이 취임식

송정명 2대 총장 이임식
Recognition of Honorary President : Rev. Dr. John M. Song

임성진 3대 총장 취임식
Inauguration of President: Rev. Dr. Sung Jin Lim

사회: 신선묵 교수
Presider: Dr. Seon Mook Shin

순서	내용	담당
찬송 Hymn	459장	다 같 이 Congregation
기도 Prayer		윤경호 목사 Rev. Kyung Ho Yoon
설교 Message	"이때를 위한 지도자" *Presidential leadership for such a time as this*	Dr. Lester E. Ruiz ATS Senior Director
공로사 Recognition Address	송정명 총장	임승향 이사 Board Member
공로패 증정 Presentation of the Plaque	송정명 총장	주익성 동문회장 Alumni President
서약 Vows	임성진 총장과 학교에게	윤성환 이사장 Board Chairperson
공포 Proclamation		윤성환 이사장 Board Chairperson
취임패 증정 Presentation of the Plaque	임성진 총장	윤성환 이사장 Board Chairperson
교기 이양 Passing the Flag		송정명 총장 · 임성진 총장 Dr. John M. Song · Dr. Sung Jin Lim
기념품 증정 Presentation of Gifts	송정명 총장 · 임성진 총장	김현경, 윤임상 교수 WMU Facultty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이상명 총장, 김지훈 목사, 윤주동 장로 (미주장신대 총장) (OMC 담임) (상파울 OMC 장로)
답사 Replying Address		송정명 총장 · 임성진 총장 Dr. John M. Song · Dr. Sung Jin Lim
축가 Congratulatory Song		신선미 동문 WMU Alummi
인사 및 광고 Announcements		신선묵 교수 WMU Faculty
교가 제창 School Anthem		다 같 이 Congregation
* 축도 Benediction		남종성 목사 WEMA President
* 퇴장 Recessional		다 같 이 Congregation

송정명 총장
Rev. Dr. John M. Song

저서

〈설교집〉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서전〉
우리 함께 걸어서 행복한 그 길

약 력

1974. 03 - 1976. 05	신수동 성결교회 전도사
1976. 06	도미
1977. 01 - 1989. 11	동양선교교회 부목사(선교, 행정, 수석부목사)
1989. 11 - 2013. 08	미주평안교회 담임
2013. 09 - 현재	미주평안교회 원로목사
1991 - 현재	국제 전도폭발 자문위원회 이사
1994 - 1996	위크립 성경 번역 선교회 한인 후원회 회장
1998. 05 - 2008. 09	LA 마라톤 날짜 변경 위원회 위원장
1996 - 현재	월드미션대학교 객원교수
1996 - 1997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객원 교수
1996 - 2017	미주복음방송 이사
2006 - 2017	성시화 운동 LA 대표회장
2011. 07 - 2012. 07	미주 한인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2011. 11	Rose Bowl 다민족 기도회 대회장
2012. 06 - 2018. 06	월드미션대학교 2대 총장
2014. 09 - 2015. 09	미주복음방송 3대 사장
2017. 01 - 현재	미주성시화운동 미주 대표회장

학 력

1974. 02	성결대학교 신학과 졸업
1976. 02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상담심리) 졸업
1990. 06	풀러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임성진 총장
Rev. Dr. Sung Jin Lim

약 력

1988 - 1991	동양선교교회 전도사
1992 - 1994	동양선교교회 부목사
1994 - 1999	오레곤동양선교교회 담임
1999 - 2010	월드미션대학교 학감
2010 - 현재	월드미션대학교 부총장
1999 - 현재	설교학, 실천신학 교수

학 력

1985. 02	세종대학교 영문학 학사
1991. 06	아주사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1992. 06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석사
1995. 06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광 고

1. 2018년 제 27회 학위수여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2.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과 그 가족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3. 이 · 취임하는 총장의 사역 위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장내의 질서를 위하여 모든 하객과 회중은 교수단, 이사진, 졸업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교의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동양선교교회, 후원자, 이사진, 동문회, 그리고 모든 교직원과 재학생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일하는 즐거움 "

남종성 교수
Director of MAT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잠 10:18, 새번역)

노동을 즐거운 것입니다. 일하면서 많은 기쁨과 보람을 얻습니다. 노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근면한 사람입니다. 일은 인격수양의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 적응력, 자제력 그리고 복종심을 배우게 합니다.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 열매를 따먹고 싶어합니다. 이 마음의 핵심에는 폭군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만 편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영국에 R. 버튼이라는 오래된 신학자가 있습니다. 옛 시대의 사람이지만 그의 말은 오늘날도 늘 새롭게 와 닿습니다. "게으름은 몸과 마음을 해치는 독이고, 나쁜 버릇을 키우는 양성소이며, 모든 해악의 어머니이고, 일곱 가지 대죄 가운데 하나이며, 악마의 쿠션이자 베개이자 거처이다. 게으른 개는 불결하다."

녹이 철을 좀 먹듯 게으름은 인간의 영혼을 녹슬게 합니다. 노동을 천시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개인이나 국가는 망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은 노예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노동은 노예나 천민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라를 좀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상류사회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누구나 노동을 귀하게 여기는 개인이나 나라가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노동이 저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노동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때문에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사람은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수고하며 땀을 흘리게 하신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게으름이 저주입니다.

성경은 노동을 강조합니다. 사도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고 했습니다.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건축을 부탁하면서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지로다"(대상 22:16)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일로 땀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세 곳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입니다. 가정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일입니다.

교회에서의 일은 내가 뭔가를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로서 우리 에너지의 근원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감사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웃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감정입니다. 그 은혜를 사랑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사를 나누는 것이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직장에서의 일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이 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무장뿐만 아니라 탁월함과 인품을 겸비해야 합니다.

강영우 박사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3 C를 말합니다. Competence (실력), Commitment (헌신), Character(인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인재를 뽑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세상에 나가 일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력과 인품을 겸비해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10:18은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부지런하면 멋진 집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신성한 노동을 통해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건설해 가기 바랍니다.

" 미국의 문화 다원주의와 다문화교육 "

최윤정 교수
Director of Online Education

미국은 각 국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동화정책을 통해 통합을 모색했습니다. 동화정책은 용광로(Melting Pot)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용광로의 개념은 다양한 이민자들의 문화가 거대한 미국 주류문화 안에 녹아들어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문화가 한 사회 안에서 공존한다기 보다는 주류문화가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다른 문화가 존재할 만한 가치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문화를 지배문화에 동화시키는 용광로 이론은 다수의 문화를 소수에게 강요하는 것이며 이것은 많은 소수문화로 이루어진 미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동화 정책의 대안으로 미국은 용광로 이론이 아닌 샐러드 볼(Salad Bowl) 이론을 표방하며 정책의 목표를 소수 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두게 됩니다. 샐러드 볼은 갖가지 색채와 다양한 맛을 지닌 채소와 과일을 담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용광로가 그 안에 담긴 것은 어떤 것이든 한 가지로 녹여내는 특성이 있다면, 샐러드 볼은 서로 다른 모양과 색깔과 향을 지닌 재료들이 자신의 고유의 성질을 그대로 지닌 채 한 데 담겨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조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문화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문화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는 공존을 위하여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 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회의 헤게모니를 가진 주류문화의 존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며, 다문화주의는 주류문화의 존재 없이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문화 정책을 표방하는 나라로서 호주와 캐나다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채택하는 데 비해, 미국은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를 채택하여 백인 중심의 주류문화가 미국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이민자들에게 포용적인 다문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며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은 한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큰 혜택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한 가지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자신의 문화가 지니지 못한 상대방 문화의 장점을 배울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다문화교육인 것입니다. 또 미국의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다양한 문화에 대해 관대함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로부터 온 학생들의 자기 존중과 문화적 자부심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커리큘럼)은 공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학교에서 다문화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 사회 통합을 이루는 초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문화교육의 커리큘럼에는 주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문화나 인종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미국은 다양한 문화권으로 부터 온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에 따른 학습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사의 다문화적 인식이 철저히 요구됩니다.

다문화교육은 궁극적으로 다문화 역량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다문화 역량 증진은 다양한 문화권으로 부터 온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주류 문화를 이루고 사는 백인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다문화교육의 목표입니다. 다문화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이란 개인이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와 편견을 지양하고 상대 문화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의사소통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요소들과 문화적 관습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오랫동안 지니고 살아왔지만 세계화 시대에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급속히 다문화사회를 이루고 있는 한국은 다문화교육에 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은 한국에 들어온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주류문화를 이루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배타적인 태도와 편견을 버리고 상대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공존과 통합의 사회를 이루어내야 하는 21세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김경준 교수
Director of MACC Online

출애굽기서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10 재앙 이후에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자 바로가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의 군대가 너희를 쫓아 올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같은 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외친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를 책망 하십니다. 야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구만 있느냐? 너 뭐하니? 라고 말이지요. 여기서 '부르짖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소리를 질러 간청하다', '큰 소리로 기원하다'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너는 어찌하여 소리질러 내게 기도만 하느냐?'고 꾸짖는 말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이상 심령 안에서 부르짖는 애원으로 기도만 하지말고, 믿음의 행동을 담대히 취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동안 기도하며 앞으로의 삶을 위해 준비해 오신 졸업생들께서는 이제 믿음으로 행동을 취할 때가 온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모세의 모습을 잘 눈여겨 보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수아1장10절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만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테니 양식을 준비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 무장하고 형제들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앞에서 모세가 겪었던 일을 확실히 이해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즉,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 자신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멈춰있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처음에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만 그 결과는 그의 말과 같이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으로 정탐을 갔던 두 정탐군이 적군에 의해 발각이 되어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득불 3일동안 숨어서 지내야만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선포한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것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의 삶에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척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야. 난 못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발을 내 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되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비게이토 선교회가 출판한 당신도 영적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에 금요일 저녁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성도들이 예정된 예배시간에 맞춰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설교를 하시기로 예정된 목사님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책은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씌여진 책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자인 리로이 아임스는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은 그 위기 상황에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자고 제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비록 몰몬교도이긴 하지만 그가 발견한 인간에 대한 통찰은 귀 기울여 볼 만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그 첫번째 습관으로 주도적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reactive한 사람 즉 반응적인 사람과 proactive한 사람 즉 주도적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삶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여부가 갈린다고 코비 박사는 조언합니다. 만일 무엇 무엇만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지 않을거야 이런 말들은 모두 reactive한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입니다. Proactive한 사람은 자, 대안을 찾아보자,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나는 효과적으로 설득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reactive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반면 여호수아는 proactive한 사람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후 능동적으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들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애통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 "

김현경 교수
Director of BACC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또는 친구들을 이 세상에서 떠나보낼 때 또는 그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될 때 상실을 경험한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도 상실을 경험한다.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와 의미에 따라 상실감은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가족을 잃는 것, 관계를 잃는 것, 명예를 잃는 것, 역할을 잃는 것, 직장을 잃는 것, 또는 육체의 한 부분을 사고로 인해 잃는 것 등의 다양한 상실들이 우리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상실을 통해 우리가 위협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과 안전감이다.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단순한 불안한 감정의 다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식이 흔들리고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안전지대에 대한 강한 불신을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기에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그 위기 앞에서 밀어닥치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위기의 상황 그 자체가 주는 위협감보다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 상실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이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 자극되는 존재적 불안감에 근거하는 것들이다.

심리학자들은 위기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식을 건강한 사람의 특징으로 본다. 즉, 자신에게 다가온 위협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경험하는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얼마나 적절한 애도의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부적, 외부적 자원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 그 상황에 대해 적절한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그 상황을 더 큰 위기로 만들어가든지, 아니면 인격 성숙의 통로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바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착 관계라고 주장한다.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개념으로 먼저는 일차 보호자를 통해 어릴 때부터 형성되고 강화되어가는 것으로 이 애착 관계는 각 사람들 안에 '안전기지' (security base)를 형성 해준다는 개념이다. 한 사람 안에 '안전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잘 견디고 나아가서는 그 경험을 성숙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만일 '회피적'이거나, '이중적'이거나 '무질서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경험되는 상실과 고통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더 깊은 불안감과 거짓된 안전감을 만들어 감으로 더 깊은 위기로 빠져들어 가게 한다는 것이다. 자신들 나름대로 불안을 이겨보고 통제해보려는 이들의 본능적인 노력은 모두 안전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안전감은 말 그대로 조작된 것이기에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것이지 우리의 존재 가운데 깊게 뿌리내리는 안전감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가정 폭력자들에 대한 연구들은 상황과 상대를 통제해보려는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심한 열등감으로 인해 형성된 낮은 자존감과 거절 감이 불러일으키는 불안감과 분노에 근거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내면의 깊은 불안함을 다스려 보려는 우리들의 적응 방식들은 어쩌면 그 한 순간의 불안함과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들 자신의 인간적인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속이고 자기 삶의 모든 환경과 관계를 조작하면서 살아가는 거짓 된 삶이 되는 것이다.

위기는 우리들의 삶에 너무도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다. 이를 부인할 수도 제거할 수도 피해 다닐 수도 없다. 그러나 위기는 때론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며 엉클어진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리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기에 위기의 상황은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거짓된 안전 기지를 발견함으로 참된 안전기지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애착 관계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소중한 깨달음의 기회가 된다. 안타까운 것은 사역자로서 상담자로서 교회 내 성도들을 돌보다 보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경험되는 깊은 상실의 슬픔과 고통을 애도의 과정을 통해 해결해가기 보다는 표면적인 평안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그들의 문제일까? 아니다. 비록 교회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인간 됨의 연약한 실체를 있는 그대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투명함보다 지켜야 할 믿음의 행위와 기대하는 삶의 기준을 더 강하게 선포하다 보니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무너지는 마음을 나눌 수 없고 마음의 깊은 슬픔과 불안은 표현되면 안 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

시편 기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애통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이 당면한 위협이 가져다주는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을 그대로 느낄 때 나타나는 반응이자, 인생의 사건이 앗아가 버린 소중한 것들에 대한 상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에 대해 슬픔과 두려움으로 소리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애통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의 인간됨의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안전기지'는 바로 주님께만 있다는 진리를 영혼 깊은 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즉,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리가 붙들었던 거짓된 안전 기지를 부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애착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그리할 때,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들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라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시 62:2, 6; 61:3; 90:1)이 바로 우리 영혼의 깊은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들의 참된 안전 기지가 되어주시려 우리 가운데 오셨음 (요 15:4~7)에 대한 믿음이 위기와 불안의 중심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시각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함으로 애통하는 상한 심령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두려움과 거짓된 자아를 다스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소속감과 안전감을 이웃에게 흘러내어 보내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재난 & 종말에 대한 시네마 신학담론 "

류시하 교수
Director of BABS

많은 영화가 재난을 소재로 다룬다. 또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실존과 부조리를 다룬다. 이런 이야기는 영화보다 성경이 먼저 이야기 했다. 성경이 지진,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에 관한 소재와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재난과 종말의 이야기는 결국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는가의 구원의 이야기다. 성경은 이러한 구속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구속사와 관련된 인간의 재난에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재난과 종말은 인류의 메타 내러티브의 일부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바벨탑의 붕괴, 대홍수 사건을 다루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폭풍 속에 배가 파선되고 바다의 인신 제물로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의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전쟁 이야기 등 이러한 사건 뒤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의 그림이 있다. 하지만 약속된 그 구원이 있기 전에 사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실존이 앞서 존재한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재난의 현장은 먼 나라의 이야기도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삶의 실존이며 인간의 경험이다. 예고 없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닥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가 이러한 재난을 늘 걱정하며 살아왔고 나름대로 대비했던 것 같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와 같은 문화 인류학자는 인류의 이러한 자연 재앙의 인간에 대한 도전과 인류의 그 응전의 결과물이 문명이라고 정의했다. 재난은 인간의 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삶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대중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감동을 전하는 영화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장르가 재난 영화다.

1976년 7월 28일에 일어난 탕산 지진으로 헤어진 가족의 이별과 재회를 그린 대지진이라는 영화가 있다. 제 83회 아카데미상 외국어 영화 부문 중국 대표 작품이다. 현장감을 아주 잘 살린 중국 최초의 70mm IMAX라고 영화로 소개된다. 이 영화를 예로 택한 이유는 재난의 참혹함에 대한 신학적 담론이 아니라 이 영화의 핵심 스토리 라인이 선택과 선택받지 못한 자 사이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신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과 예정을 그려주기 위함이다.

1976년 무더운 여름 여느 가족들 처럼 작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단란한 가정에 이란성 쌍둥이 아들과 딸을 둔 평범한 가정에 예기치 않은 재난이 닥친다. 엄마와 아빠가 일을 하러간 밤 쌍둥이들이 자는 그 밤에 강도 7.8의 대지진이 닥친다. 한 순간에 온 마을과 도시가 무너지고 집들이 붕괴하기 시작한다. 부부는 집에 남겨 놓은 아이들을 생각에 집으로 급히 달려가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아파트 건물과 함께 무너져 내려가는 자녀를 보고 구하러 아버지는 달려가지만 결국 건물과 함께 아버지도 두 아이도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 실제 당시 대지진 23초가 27만 명이 죽거나 사라졌다고 한다. 가족을 잃은 엄마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찾는다. 이미 남편은 사체로 발견되었다. 다행이도 엄마는 건물 잔해 콘트리트 더미에 깔렸지만 살아 있는 두 아이를 발견한다. 그러나 사람들과 구조대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구하려 하지만 한쪽을 들면 다른 한쪽이 무너져 두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한다. 둘 다 구해야 한다고 애절하게 외치지만 결국 어머니는 한 아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한다. 그 한마디의 말을 딸아이는 듣는다.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 그리고 한 방울의 눈물과 함께 죽어갔다. 시신들을 수습하는 장소에서 엄마는 죽은 딸아이를 업어 남편 곁에 눕인다. 그리고 얼마 후 비가 내리고 기적같이 죽은 줄로 알았던 딸아이가 살아났다. 딸아이는 보호소를 통해서 중년 부부에게 입양 된다. 그리고 두 가족은 긴 세월이 흐른다. 딸아이는 엄마를 찾을 수 있지만 찾지 않는다. 그리고 딸아이의 친 엄마와 아들은 미안함과 죄책감을 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어느날 다시 중국 쓰촨성에 지진이 일어나고 자원봉사로 딸아이는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만난 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의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한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를 극적으로 다시 만난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딸에게 용서를 빈다. 딸아이도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게 된다. 수십년동안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픈 데로 내버려 둔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선택받지 못한 자의 아픔과 사연을 통해 하나의 신학적 질문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시는가? 라는 질문이다. 누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가? 이것은 신학이 다루는 문제이기도 하다. 칼빈과 같은 신학자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고 무조건적 선택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 무조건적 은혜의 선택은 하나님의 작정에 달렸지 선택받는 자의 의지와는 상관없다고 한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착한 의지적 행위도 믿음을 선택하는 그 바람도 선택받는 구원과는 직접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건물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있는 아이들처럼 엄마의 선택에 따라 택해지는 것이다.

아이가 스스로 살아 나올 수도 없고 자기를 택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처럼 구원 앞에서는 인간은 받아드림 그 외에는 선택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택함받지 못한 자의 아픔과 상처는 누구의 몫이며 책임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인간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된 자가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 답이며 개혁주의 기독교의 교리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가? 이 질문은 칼빈의 예정설이라는 성경적인 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질문되어온 신학사의 한 담론이었다. 이 담론을 목회의 현장에서 신학적 답변을 이끌어낸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누구나 조건 없는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선택은 사실 그 분께 가까이 있는 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있다. 마치 비오는 날 벼락이 임의로 땅에 내리치지만 높은 탑 뾰족한 곳에 쉽게 내리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반드시 높은 곳이어서가 아니라 높은 곳이기에 천둥 번개가 내리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예정이란 고난으로 점철된 부조리한 현실에서는 하나를 먼저 구원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섭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재난과 종말의 메타내러티브가 시사하고자 하는 바다. 영화에서처럼 둘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 그러나 현실이나 미래의 종말이나 삶에는 선택이 항상 존재한다. 그 선택에 대한 섭리와 예정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작정이라고 설명하기 보다는 누가 그분의 곁에 그분의 눈앞에 가까이 있는가의 사실이 엄마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인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업을 받을 자이기에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족의 미래를 위한 소망을 이룰 자를 먼저 택했다는 현실이다. 이 영화에서 아들을 택하는 엄마의 선택을 같은 동양인으로서 조금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딸 아이에게는 더 깊은 상처를 만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다. 어쩌면 이보다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기에 부모는 끝까지 아니 평생 그 구원에 대한 마음과 아픔을 평생지고 간다. 하나님의 선택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조건없는 선택이지만 제한적이라는 계시한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장에서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전2:4) 라고 명확히 말씀하신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는 것이다. 이 모순적인 표현은 아버지로서 부모의 마음을 말씀한 것이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후반절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마치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머니 마음은 두 아이 모두 살리기를 원하지만 결국 한 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의 어머니의 뜻과 마음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의 결말처럼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도 마침내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 다시 사는 삶과 그 삶의 회복과 화해가 먼저 선택받지 못했지만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은혜다. 먼저 택함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과 기다림으로 반기실 분이다. 혹 하나님께서 선택과 운명, 현실과 한계라는 상황에서 나와 당신이 먼저가 아니어서 우릴 두고 가셨다면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저 그 분께 가면 된다.

" 팔레스트리나와 교황 마루첼루스 미사곡 "

(Pope Marcellus Mass)

윤임상 교수
Director of MA in Music

오늘날 교회음악은 다양한 세속음악이 교회음악과 합쳐져서 교회음악의 세속화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본인은 그것을 걱정하기에 앞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싶다. 그것은 교회음악의 탐미주의와 교회 음악인들의 영적 성숙인 것이다. 오늘날 교회음악이 점점 더 예술적 미에 촛점을 맞추다 보니 교회음악의 본질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양을 드릴까? 하는 그 본질적 문제를 고민하는것보다 어떻게 하면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에 관심과 초점이 더 맞추어져가는 오늘날의 교회음악이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문제에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개선되어야 할 요소를 찾기 위해 미사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16세기 위대한 작곡가 팔레스트리나(Giovanni Pierluigi da Palestrina 1523년 경-1594) 를 통해 교회음악의 본질을 찾아보려 한다.

교회 역사를 보면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에서 1545-1563년까지 이탈리아 북부도시 트렌트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트렌트 종교회의가 있었다. 이것을 소위 반 종교 개혁(counter reformation)이라 하는데 이를 통해 가톨릭 교회 스스로가 여러가지 부조리와 부패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를 추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했기 땜문이다. 이 트렌트 종교 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제 들 중 하나가 바로 음악에 관한 심각한 자아 비판이었고, 바로 그 회의의 세번 째 마지막 세션인 1562-1563년 사이에서 교회의 다성음악 사용에 대한 논의를 하며 두 가지 중요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는, 교회음악 가사에 세속적인 노래들 즉, 권주가나 사랑에 관한 멜로디들을 이용해 교회음악 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으로 인해 순수한 교회음악의 모습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당시 크게 발전하고 있는 다성음악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다 보니 가사를 위한 음악이 아닌 음악을 위한 가사가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가사를 잘 알아 들을 수 없다는 불만들로 인해 당시 카톨릭 지도자들에게 강한 비판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단순히 미를 추구하는 음악으로 전개되어 교회음악의 본질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의회에서 많은 여론은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다성음악을 뒤로 하고 단선율의 음악 즉 9세기 이전의 음악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때 혜성처럼 나타나 이런 이론들을 반박하고 기존의 다성음악을 그대로 유지케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음악가가 있었는데 그는 미사 음악의 아버지라 칭함 받는 팔레스트리나(Giovanni pierluigi da Palestrina 1525년 경-1594) 라는 작곡가였다. 이 팔레스트리나 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난 로마 근교의 작은 마을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잠시 성가대원과 오르가니스트로 있었지만 대부분의 생애는 로마에서 보냈다. 로마 교황청과 로마 지역 교회 성가대원과 오르가니스트, 그리고 교회 악장으로 지냈고 1571년 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 베드로 성당의 교회악장으로 봉직하였다. 팔레스트리나는 교황 마루첼루스 라는 표제를 담은 "6성부 미사곡"을 작곡하여 다성음악 양식이 가사를 이해하는데 결코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가 작곡한 이 음악은 트렌트 종교회의 기간 중에 불려졌는데, 신비로울 만큼 철저한 협화음과 선율의 순차 진행을 갖고 가사와 음악이 일치 된 카논(돌림노래 형태)과 호모포니 구조를 적절히 배합해서 가사가 정확하게 들리도록 하였다. 아울러 완벽한 기량으로 만들어진 가장 순수한 영적 멜로디인 챤트를 선율로 사용하여 영감이 넘치는 음악으로 만들어 들려줌으로써 다성음악이 지니고 있는 참된 가치를 공의회에 확인시켰고, 나아가서 다성음악에 적대감을 갖고있던 반대자들을 침묵시켰던 것이다.

팔레스트리나는 이렇게해서 당시 발전되어온 다성음악을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교회음악의 구세주가 되었다. 그는 진정 당시 뛰어난 기량을 갖춘 탁월한 음악인으로 성숙되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훈련하며 최상의 노력을 기울였던 위대한 음악인이었다. 아울러 깊은 신앙의 소유자로 영적인 일에 아주 민감했던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다윗은 최초의 교회음악 기관을 세우고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부탁했다. 첫째는 "구별되이 섬기라"는 말이다.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말은 구별되이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교회음악인들은 탁월한 음악성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예술세계를 아름답게, 창조적이고 깊이있게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일을 위해 교회음악인들은 훌륭한 음악인으로 성장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각 자에게 맡겨준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였다. 영적인 찬양을 준비하고 훈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세상과는 구별되이 살려는 노력과 함께 육신으로 살지만 육신으로 행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이 인정하는 음악인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음악인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작곡자 팔레스트리나는 교회음악이 예술적으로만 치우쳐 아름다운 미를 교회음악에서 배재시키려는 당시 지도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거기에는 위와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음악인이 되어야 할 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일에 고민을 가졌던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 음악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사회 활동

interview

윤성환 이사장

지난 3월 16일(금) 오후 12시 30분 기도후원자 및 본교 교직원 기도회를 마치고 본교 이사장 윤성환 목사님을 모시고 이사회의 역할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안녕하세요? 본교 이사장으로서 본교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과 비전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윤성환 이사장(이하 윤) 먼저 이사장으로서 역할과 비전을 나누기 전에 한 사람의 이사로서 기본적인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모든 교직원과 재학생, 동문, 이사회, 후원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독특한 것이며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하고, 헌신해도 아깝지 않을 내용입니다.

사명은 심장과 같아서 개인의 삶을 유지하는 것 뿐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되고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교의 사명을 뼛속 깊이 새기고 난 후에 각자의 맡은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사회는 학교 사명을 따라 비전을 최종적으로 설정하고 그 비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비전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재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본교의 사명을 자신의 심장에 이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본교의 비전이 자신들의 심장을 뛰게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어떤 비전과 장기발전 계획을 본교와 공유하고 있습니까?

윤 이사회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교의 비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제시하고 그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장기발전 전략을 세우게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교의 장기발전 계획은 목회학석사과정을 현장중심/사역능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캐나다 밴쿠버에 소재한 North-west Baptist Seminary와 MOU 를 체결하여 Competency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상담학 석사과정도 자격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부과정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영어프로그램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영어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간호학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범위를 미국 중심에서 한국, 남미, 아프리카, 중국으로 확장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한인중심, 미국중심의 울타리를 뛰어 넘어 전세계로 확장하고 한어/영어/중국어/스페인어 영역에까지 넓히려 합니다.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 현재는 한인 1세 중심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교의 사역영역이 확장되는 것에 발 맞추어 영어권/타문화권/한인 2세/전문인 이사들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같은 뜻을 가진 동역자가 있어야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본교의 사명에 동의하고 그 비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이사를 더 영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교의 사명에 맞추어 비전과 전략을 최종 확정하고 감독하는 것을 넘어 장기발전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나 재력이 든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부탁의 말씀이 있는지요?

윤 월드미션대학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전파를 위한 기관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 30에 본교 5층 기도실에서 교직원, 이사, 후원자들의 기도회가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 월드미션대학교의 발전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 활동

류시하 교수
Director of BA

interview

"서양의 지혜와 동양의 지혜가 만나다"
월드미션대학교 류시하 교수(성서학과 디렉터)가 '성경을 만나 논어' 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여러모로 특별하다. 류시하 교수가 집필한 첫 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학교 교수가 동양고전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다. 성경과 논어의 만남에 대해 류시하 교수는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책을 썼는지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월드미션대학교 기자인 최은 형제가 진행하였다.

안녕하세요. 류시하 교수님, 최근에 "성경을 만난 논어" 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요. 첫 책을 집필하신 만큼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류시하 교수(이하 류) 첫 번째로는 후련합니다. 숙제를 다 마친 기분이 듭니다(웃음). 사실 집필하기 전에는 교수로서 혹은 학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소홀했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마다, 사역자로서 준비되어야 할 자질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설교자, 사역자는 글을 쓰는 일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사역자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강조했는데, 정작 저는 글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책을 내는 거라 많은 두려움도 있었고요. 마치 초산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 쓰고 보니까 후련하기도 하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둘째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뭐든 지 처음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초산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류 이 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해요(웃음). 처음 제목만 보면 어렵게 보일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깊지는 않지만, 다양한 지식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깊지 않은 이유는 논어라는 것 자체가 파편적인 글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말했던 내용을 제자들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의 잠언처럼 연결되어 보이지 않은 글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쓴 메시지이기 때문에 큰 흐름은 있습니다. 서구적인 맥락에서 볼 때 흐름이 끊겨 보이는 이유는 공자가 그 글을 쓰는 자기 한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때문에 완독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책에 들어간 한자는 사라져가는 문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 다들 영어공부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영어도 중요한데, 영어 못지않게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4-5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코드가 되는 한자의 개념, 숨겨진 문화를 아는 것은 새로운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쓴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류 내적인 동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뿌리내려져 있는 사상을 통해서 그 공통된 한국인들의 마음을 이해하자는 생각과 문화를 발견하자는 거에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식 교육학이나 한국식의 심리학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적인 신학까지도 우리가 도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자를 이해해야 하고 동양의 생각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내적 동기였습니다. 외적인 동기는 우리 집이 유교적인 집안이에요. 유교적 문화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힘들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대해서 궁금했죠. 그 갈등은 신앙인가 아니면 문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인가? 동양사상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사상을 이해하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외적인 동기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목적은 기독교를 믿고 싶은데 서양적인 사상과 가치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신앙이 유교적인 가치관과 그렇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개혁신학적 보수성을 지향하는 신학교 교수님께서 논어에 대해서 연구하신다는 것 조금 의아한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류 사실 저는 신학적 배경 자체가 보수적이고, 소위 보수적 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 신앙에 있어서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가치관입니다. 특별히 제가 논어를 택했던 이유 중 하나는 논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종교라기보다는 동양인들이 가져왔던 우리의 사상 저변을 지배했던 하나의 사상의 틀이기 때문입니다. 논어가 추구하는 것은 자연을 굴러가게 하는 섭리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출발점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도자들의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어는 사람들로부터 천 년 동안 전해져 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생각과

사상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으로부터 검증받은 나름대로 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고전을 통해서 아시안 인들의 마음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논어의 한 책을 집중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게 오히려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논어 가운데 학이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앞으로의 활동과 집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류 다음번 책은 문화에 관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작성된 것은 현재 강의로 나와 있는 '영화, 신학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를 토대로 집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을 대상으로 한국식 교육학, 교육심리학을 이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신 류시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경을 만난 논어" 라는 책에 대해서 배우게 되니까, 앞으로 나올 교수님의 책들도 더욱 기대됩니다.

“ 하나님, 고난 없이 복만 주시면 안되나요 ! ”

(신 8:1-20)

이수재
M.Div.

〈서론〉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캥거루, 코알라, 바닷가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멋진 자연 환경… 호주는 캐나다와 함께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는 곳이지요. 하지만, 저는 호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왜 국토의 대부분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되어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입니다. 1년 365일 대부분 화창한 날만 지속되다 보니, 그 지역이 사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매일매일 좋은 일만 생기고 하는 일 마다 잘 풀리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네! 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화창한 날만 지속이 된다면, 그 인생은 십 중 팔구 사막과 같은 삶이 되어버릴 것 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시기에 그 분은 우리의 삶의 결국이 축복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 사막과 광야의 길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을 모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앞에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40년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그들에게 가지고 계셨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론〉

오늘의 본문 신명기 말씀 속에서, 저자 모세는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간의 광야생활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눈앞에는 지난 세월 동안 이들을 이끌며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일, 배 고프다, 목마르다 불평하며 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께 수 없이 불평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메추라기 고기를 턱까지 차 오를 정도로 게걸스럽게 먹어대던 가운데 역병을 겪었던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하여 광야생활을 시작했던 일,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생활 가운데에서도 생존하며 지경을 넓혀갔지만 막바지에 이르러 발람의 책략에 빠져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겨 이스라엘 인구의 한 지파에 맞먹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숨을 잃었던 일들까지… 이스라엘인들과 함께한 모세의 광야생활은, 철없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 처럼, 한 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으며 실제 모세가 어떤 말을 그들에게 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8장1~2절 봉독)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억하는 것 입니다. 무엇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40년의 광야생활 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얻는 유익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모세는 밝히고 있습니까? 그들이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문 마지막인 19절과 20절에서 모세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19,20절 봉독)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 “너희도 멸망하리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의미,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 본문은 2절과 16절 두 번에 걸쳐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16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2절, 16절 봉독)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었고,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금지하셨던 음란과 우상숭배의 죄를 가나안 땅 진입 직전에 보란 듯이 지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시험 결과는 무엇입니까? 꽝! 낙제입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일깨워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그들을 광야생활 가운데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끝내는 약속의 땅까지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연약하고 죄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분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 된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곳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광야생활이라는 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매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너머에 가지고 계신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좋은 날씨 속에 광야로 변해버리길 원치 않으십니다. 허락하신 비바람을 견뎌내고, 우리 안에 심어주신 씨앗들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 우리의 삶이 녹빛 가득한, 하나님 기뻐 걸으시는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이상천
선교사

교회의 사역자들로 선택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선교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다. 성도들은 열심히 교회에 잘 나가고 봉사하고 헌금 잘 내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신앙의 충실함도 내게는 없었다. 습관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내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불만족등으로 마음 가득 불평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홀로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의 역할이 있었고 그런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하는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은 분명 잘못 되었다고 생각했다.

선교사로의 부르심에 대한 감동을 애써 외면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친분이 있는 외대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스페인 선교회에 일을 돕게 되었고,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들을 들으며 외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선교훈련의 제안을 받아 매주 토요일마다 선교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서 조금씩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습관처럼 종교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선교사는 무엇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너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 나누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선교사가 하는 일이며,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 어디를 가던지 그 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파송교회 고 김일환 목사님의 기도의 힘을 얻어 인도로 파송 받아 중학교 1 학년이 된 딸과 초등학교 3 학년이었던 아들과 함께 가족들의 반대를 뒤로 첫 선교사로의 삶을 위해 떠났다.

인도에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나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힘들어 했고 혼돈의 시간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쥐고 있는 주먹을 펴는 일부터 해야 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한 나와 동행을 하셨고, 그곳에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기록 되어진 말씀 속에 나타나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가셨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므로 나의 인생에서의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었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됨을 깨달았다. 곧 옛 생명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다. 인도에서 6 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파송을 받아 이곳에서 나의 선교사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나는 또 갈등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나는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워간다.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다시 세워간다. 이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분량을 채워가고 있다.

내가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 나의 주변으로 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의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나는 주가 주시는 평안을 갖는다.

어느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부르심을 더 견고히 해주셨다. 나를 선교사와 아론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과 저 어두운 세상에 사랑의 메신저로 보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선교는 때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한다. 하지만 사랑하면 순교할 수 있다. 아니, 사랑하면 순교하길 간절히 원하게 된다!

"사랑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8-19).

기독교 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

지난 10월 3일, 한국복음주의 상담학회에서 주관하는 기독교 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면접이 본교에서 실시되었다. 월드미션대학교 기독교상담학 석사 졸업 예정자 5명이 합격하여 기독교 상담사 1급 자격증을 얻게 되었다. 또한 이 날 면접에 앞서 "심리적 외상에 대한 기독교상담 - 시각전환과 재구성 상담"이라는 주제로 한국복음주의 상담학회 회장인 전요섭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6일(목)과 31일(화)에 교내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강사로는 본교 신약학 교수인 송운철 교수가 나섰으며 채플 시간을 통해 각각 "종교개혁가들의 말씀묵상과 현대적 함의" 그리고 "신약의 구약사용"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특별히 크리스천의 사적((私的)읽기에 관해 언급하면서 풍유적 해석 (Allegorical Interpretation)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적읽기를 할 때 반드시 본문의 맥락을 살피고 학술적 문헌을 살피며 더 나아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남가주 신학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난 10월 21일(토) 은혜한인교회에서 남가주 신학대학 연합체육대회가 개최됐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국제개혁신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등이 참가한 체육대회에서 남가주 지역의 신학생들이 한 데 모여 운동 경기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이 날 본교에서는 피구, 족구, 축구, 배구, 릴레이 등의 종목에 참가하였으며 종합 3위를 달성했다. 해마다 10월에 개최되는 연합체육대회는 남가주 지역의 신학대학의 친목과 연합을 목적으로 하며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건전한 신학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각 신학대학 학생회가 연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남가주 신학대학 연합 설교 페스티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남가주 신학대학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미주 성시화운동본부 (Holy City Movement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주최로 11월 4일(토) 남가주동신교회 (백정우 목사)에서 열렸다. 이 날 설교 페스티벌에는 9개 한인 신학교가 참가하였으며, 본교에서는2016년 교내 설교축제에서 입상한 박면호(M.Div) 학우가 출전하여 로마서 1:15-17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으며 이 날 3위에 입상하였다.

NORTHWEST BAPTIST SEMINARY CBE 팀 방문

11월 1일(수) - 2일(목) 양일에 걸쳐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Northwest Baptist Seminary 의 Kent Anderson 총장과 Trent Erickson, C.O.O. 그리고 Ruth Mcgillivray, CBE Director 가 방문하여 본교 Competency Based Education 론칭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였다. Northwest Baptist Seminary는 캐나다의 ATS 정회원 학교로서 교단과 교회와 신학교가 협력하여 사역자를 훈련하는 M.Div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북미 신학교들로부터 성공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이에 CB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는 ATS 소속 학교들에게 자체 개발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현재 본교 M.Div 프로그램은 CBE 방식의 부분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

후원의 밤

2017년 후원의 밤이 11월 4일(토) 오후 6시 본교 6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신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이번 후원의 밤은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 환영과 교제 시간에는 송정명 총장의 환영사의 시작으로 식사와 교제 그리고 월드미션 음악학과의 음악 연주로 마쳤다. 2부에서는 중국학생이 녹화해서 보낸 동영상을 시청과 중국선교에 헌신해 온 윤일름 목사의 연설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패션사업을 하는 윤주동 장로의 찬조연설로 참석자의 후원을 독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금희 교수가 중국학생 후원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부에서는 감사패 증정과 장학금 전달 그리고 윤성환 이사장의 축도로 2017년 후원의 밤이 마무리되었다.

WMU News

OC 캠퍼스 ATS 실사

월드미션대학교는 지난 11월 7일과 8일 양일간 오렌지 카운티 분교에서 Dr. Bunda Nestor를 모시고 ATS 인가를 위한 실사를 받았다. 그동안 오렌지 카운티 분교에서는 기독교상담학과 석사과정 개설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그 지역에서 상담학을 공부하기 원하는 많은 한인들을 섬기고 있다. 이미 주정부 인가와 ABHE의 인가를 받았으며, ATS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이번에 실사를 받음으로써 오렌지 카운티 분교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아프리카 말라위 북서진 선교회와 MOU

본교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북서진 선교회 (North West Mission, 대표: 최바울 선교사)와 MOU를 맺음으로써 현지 지도자들을 위한 신학 교육에 동역하기로 했다. 북서진 선교회는 아프리카, 중국, 북한 등을 선교하는 선교 네트워크로서 현재 아프리카 동남부의 내륙국가인 말라위(Malawi)에서 현지 목회자를 재훈련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본교와 북서진 선교회가 MOU를 맺음으로써 앞으로 말라위 현지인 목회자들이 본교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신학 과정을 공부하게 된다.

월드미션의 밤

11월 가을, 여문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농부에게는 1년 동안 노력의 결실을 맺는감사의 달이다. 뿐만 아니라, 월드미션대학교 학생들도 11월은 감사의 달이다. 한 해 동안 학업으로 쉼없이 달려온 학생들에게 잠시 천천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한 해 동안 열정으로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에게도 감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월드미션대학교 학생회 주관으로 2017년 월드미션의 밤이 11월 21일 본교 채플실에서 열렸다. 함께 한 해를 달려 온 학우들과 교수님들이 친목을 다지는 취지로 열린 월드미션의 밤은 학우들의 숨겨진 재능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과별로 준비한 장기자랑을 선보였으며, 각 프로그램 별로 준비한 독특하고 발랄한 순서를 통해 월드미션인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했다.

22nd STUDENT MUSIC FESTIVAL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 그의 음악인들"이라는 주제로 12월 2일(토) 오후 6시 30분에 한길교회에서 음악축제를 개최했다. 루터 음악에 영향을 받은 4명의 작곡가들, 하인리히 쉬츠(H. Schütz 1585-1672), 요한 세바스챤 바흐(J.S. Bach1685-1750), 필릭스 멘델스죤(F. Mendelssohn1809-1847), 그리고 요하네스 브람스(J. Brahms 1833-1897)의 작품들을 선곡하여 연주함으로써 마틴 루터의 개혁사상과 음악정신을 재조명해보며, 오늘날 우리들도 그의 음악을 통하여 종교개혁 정신을 상기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봄 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회

월드미션대학교는 2018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환영회가 1월 23일(화), 24일(수) 양일에 걸쳐 본교와 OC상담 대학원에서 실시됐다. 본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었다. 월드미션대학교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도움으로 신입생들은 보충 등록 및 행정 사항 프로세스를 마침으로써 정식으로 월드미션인이 되었다. 월드미션 OC상담 대학원에서는 상담학 석사과정 디렉터인 김화자 교수의 사회로 진행 되었으며, 본교와 동일하게 신입생 등록 및 행정사항 프로세스를 마쳤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신입생들은 월드미션대학교의 학내 시스템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보람되고 알찬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봄 학기 LA 본교, OC 상담대학원 입학설명회

월드미션대학교는 2018년 봄학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1월 4일(목) LA 본교와 1월 8일(월) OC 상담대학원에서 입학설명회를 실시했다. 본교 입학설명회는 오후 7시 월드미션대학교 6층 학생 라운지에서 개최됐다. 입학설명회 참석자와 지도교수와 입학상담 시간을 가졌다. 입학상담 뿐만 아니라, 재정보조와 유학생 상담을 관련자들로 부터 받았다.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월드미션 대학교 신입생들에게는 입학금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며, 월드미션대학교는 당일 입학설명회 참석자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림으로 2018년 봄학기 입학설명회는 성황리에 마쳤다.

2018년 봄학기 개강 부흥회

월드미션대학교 2018년 봄학기 개강 부흥회가 1월 30일(화), 2월 1일(목) 양일간 본교 채플실에서 열렸다. LA한인침례교회 담임으로 시무하는 박성근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교수, 재학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었다.

박성근 목사는 나의 욕심과 욕망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삶을 강조했으며, 나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그리고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WMU 봄 수련회

2018년 3월 10일 학생회 주최로 월드미션대학교 봄학기 학생 수련회가 팜스프링스에서 있었다. 이번 봄 수련회는 하루 일정으로 신입생과 재학생 그리고 교수와 동문이 참석했다. 팜스프링스로 가는 시간을 활용해서 박조슈아 교수의 인도로 조별 큐티 나눔을 했다. 큐티 나눔을 통해서 광야 속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학우들끼리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팜스프링에 도착하여 첫 번째 일정으로 팜스프링스한인교회(최승목 목사 시무)에서 최승목 목사의 강의를 들었다. 이날 최승목 목사는 사람이 변화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성령의 사역에 의존할 것을 강조하며 신학생들에게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다음 일정으로는 월드미션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경준 교수의 강의로 이어졌다. 김경준 교수는 '용서'라는 주제로 기독교 관점에서의 용서의 정의와 용서의 유익에 대해서 가르쳤다. 끝으로 샌 하신토 산에 들러 봄학기 학생 수련회의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ATS TEAM VISIT

2013년 한인 신학교 최초로 북미 신학대학원 협회 ATS의 정회원으로 승인받은 월드미션대학교는 미국을 비롯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양질의 기독교 교육을 제공해왔다. 이번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ATS Team Visit을 받았다. ATS Liaison인 Dr. Lester Ruiz 을 비롯하여 이번 팀의 Chair인 Dr. Janet Clark, 그 외 Dr. Nester Bunda, Dr. Kelly Campbell, Dr. Steven Schweitzer, Dr. Arch Wong 등이 방문하여 각 프로그램 디렉터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인터뷰 하였으며 학교의 전반적인 행정과 학사관리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번에 ATS 재 인가(reconfirmation)를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ATS 정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중보기도 모임

1989 년 월드미션대학교 창립과 함께 한 기도후원회는 본교가 기도에 힘입어 세워지고 발전되어온 기도의 학교임을 늘 우리 마음 속에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런 창립 당시 기도 후원자의 정신을 이어 받고자, 지난 2017년 7월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운영이사, 교직원 및 기도후원자들이 함께 모여 학교의 비전를 나누며 이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다. 중보기도 모임에서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기도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와 함께 물질로도 학교를 섬기고자 하는 새로운 후원자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WMU 장기발전 계획

임성진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3대 총장

월드미션대학교는 성경적 교육을 통해 변화 받아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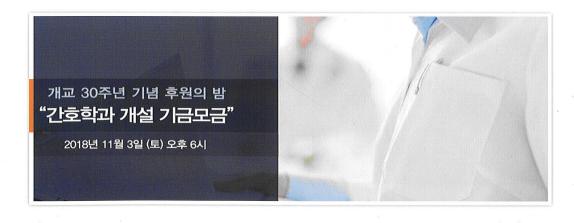
월드미션대학교는 1989년 3월 27일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훈련과 학문 사이에 균형을 이룬 새 시대에 적합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3년 1월 6일 동양선교교회에서 현재의 Shatto 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학문적인 기초를 위하여 BPPE, ABHE, ATS 인가를 받았으며 신학, 음악, 상담, 온라인(수료증,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2018년 27회 학위수여식까지 922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어 목회자, 선교사, 교회음악사역자, 목회상담가, 평신도지도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개인주의의 발달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인 진리가 무시되고 있으며 기독교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 상실로 반 기독교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쇠퇴하고 목회 지망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제약은 학교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은 졸업 후 사역지 부족 등 여러가지 요인과 연계되어 있는 포괄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중심으로 세워진 월드미션대학교는 사역이 확장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이 사역현장에서 유용한 기독교 사역자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론 중심에서 사역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Competency)을 습득하도록 교육내용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를 영입할 때 학위만 중심으로 하는 것 보다 각 분야의 실제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교수의 연구활동을 강화하면서 사역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론과 사역능력을 함께 갖추게 함으로 계속 변화하는 사역현장의 필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독교 정신을 가진 의료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간호학과(학부과정)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신학교육의 경우 목회자 뿐 아니라 다양한 기독교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사역자 프로그램을 수료증 과정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중국과 남미 아프리카 현지 사역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영어 프로그램도 병행하려 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전반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관과 개인이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여 여러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300년 역사 끝자락에 기독교정신을 학교 목적에서 삭제하고 설립목적과 반대로 세속사상을 중심한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내외적인 급속한 변화와 도전과 위기 속에서 월드미션대학교는 설립정신인 기독교 정신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교육공동체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역자들의 동참으로 월드미션대학교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독교 교육기관으로 계속 성장해 갈 것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중국학생 장학금 기부자 명단

HUDSON TAYLOR SCHOLARSHIP

강일준 강태준 고은혜 구자경 김광돈 김광찬 김기성 김대성 김대준 김루시아 김명희
김박선미 김병수 김영안 김옥선 김응수 김정애 김주영 김청익 김현경 김화자 남종성
노용호 노재희 라철삼 라크마 류시하 문명상 박봉관 박선우 박숙경 박 옥 박윤우
박제영 박효순 배영하 배차냥 백소피아 백윤조 백현님 송성훈 송운철 송정명 심동호
심에스더 엄한광 오광탁 오용주 윤성환 윤에스더 윤임상 이금희 이기영 이명욱 이인하
이형수 이혜선 이홍주 임금화 임성진 임승향 임종호 정명호 정미영 정성길 정성은
정종원 조용직 조정차 주익성 진형순 최고명순 최문환 최비키 최상영 최윤정 최학선
하지호 한긍리 한승수 함정희 홍순원 홍우규 Kim, Andrew Kim, Esther Kim, Jea Hanna Counseling & Spiritual Care Center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김밥천국 장코스모스 프라임종합보험

지정 장학금 기부자 명단

마명희 박윤환 방승신 백광세 이금희 정봉모
조혜자 황요셉 Anne Sook & Woo H Lee Aura Lopez Punda Nam

일반 후원금 기부자 명단

김광돈 김대성 김박선미 김에스더 박 옥 송정명 윤성환
임성진 임승향 정성길 최학선 Chae, Keu Woong

월드미션 대학교 교가

씩씩하게
Allegro Moderato ♩= 120
임동선 작사
박재훈(1992.5.30)
1.주 님 이부 - 르 - 셨 네 주님 이 부 르 셨 네 추 수 할 일 - 꾼 -
2.주 님 이보 — 내 — 시 네 주님 이 보 내 시 네 죽 기 까 지 — 충 성
되 라 우 리 를 부 르 셨 네 체 력 학 문 연 마 하 라 인 격 영 력 길 러 보
하 라 우 리 를 보 내 시 네 모 든 민 족 제 자 삼 아 땅 끝 까 지 증 인 되
라 (길러보라) 주 - 님 (주님)이 부 르 셨 네 주 - 님 이 부 르 셨 네
라 (증인되라) 주 — 님 (주님)이 보 내 시 네 주 — 님 이 보 내 시 네
solo piano or orchestra 주 님 만 스 - 승 - 삼 은 우 리 월 드 미 션 대 학
교 주 님 만 을 스 승 삼 은 우 리 월 드 미 션 대 학 교

BRIEF HISTORY OF WMU

1989년 3월 27일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훈련과 학문 사이에 균형을 이룬
새 시대에 적합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의 육성을 설립목적으로 월드미션대학교가 설립되었다.

1988. 11. 28	세계선교신학대학 이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1989. 03. 01	임동선 목사 학장으로 취임하다.
1989. 03. 01	이원희 목사 학감으로 부임하다.
1989. 03. 27	신입생 32명으로 본교 개강, Donald A. McGaveran 박사 초청 개교기념 특별강좌를 개최하다.
1991. 03. 18	신학석사(M. Div., M.A.)가주교육국 인가(BPPVE 94310)를 취득하다.
1992. 08. 18	대학학부 인가취득, 학부를 세계선교신학대학으로, 대학원을 세계선교신학대학원으로 하다.
1992. 09. 27	모스크바 세계선교신학원을 개교하다.
1993. 06. 29	종합대학교로 개편, 명칭을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로 변경하다.
1993. 12.11	총장에 임동선 목사, 부 총장겸 대학원장에 이정근 목사를 선임하다.
1999. 03. 25	개교 10주년 기념예배 및 행사를 거행하다.
1999. 07. 01	주정부 완전인가(Full Approval) 취득. 유아교육과, 평신도학과 인가를 받다.
2003. 01. 08	학교건물을 구입하다.
2003. 08. 23	새 교사이전 감사예배를 드리다.
2004. 08. 30	원격교육센터를 신설하다.
2005. 01. 24	음악학과(BAM/MAM)를 신설하다.
2006. 02. 17	ABHE로부터 Full Membership Status(정회원자격)을 부여받다.
2006. 06. 26	ATS로부터 Associate Membership Status(준회원 자격)을 부여받다.
2008. 02. 20	ABHE, TRACS로부터 일반학과, 상담학과를 인가받아 신설하다.
2009. 11. 03	TRACS로부터 Full Membership Status(정회원 자격)을 부여받다.
2008. 06. 07	원격교육과정 제 1회 졸업생을 배출하다.
2010. 11. 06	임성진 학감 수석 부총장으로 임명하다.
2011. 03. 25	ABHE로부터 Reaffirmation Accredited Status(정회원 재인가 자격)을 부여받다.
2011. 06. 25	ATS로부터 Candidate Membership Status(정회원후보자격)을 부여받다.
2012. 06. 02	설립자 임동선 박사 초대 총장 이임/ 송정명 박사 2대 총장으로 취임하다.
2012. 08. 20	대학원 상담학과를 인가받아 신설하다. (ABHE, TRACS로부터)
2013. 08. 09	ATS로부터 Full Membership Status(정회원 자격)을 부여받다.
2014. 01. 13	한인기독교상담소 개설
2014. 04. 15	TRACS로부터 Reaffirmation Accredited Status(정회원 재인가 자격)을 부여받다.
2014. 06. 07	개교 25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다.
2014. 06. 25	ATS로부터 Online Comprehensive 인가를 받다.
2015. 05. 29	기숙사 건물을 구입하다.
2015. 06. 16	ATS로부터 목회학석사(M.Div)과정 Residential Exception 인가를 받다.
2016. 02. 02	ATS로부터 상담학석사(MACC)과정 Residential Exception인가를 받다.
2017. 02. 02	ATS로부터 교회음악학박사(DCM)과정 인가를 받다.
	ATS로부터 기독교상담학 석사(MACC)과정 OC Extension Site 인가를 받다.
	ABHE로부터 성서학준학사(AABS), 기독교상담학준학사(AACC)과정 인가를 받다.
2018. 03.15	ATS로부터 Reaffirmation Accredited Status(정회원 연장)을 위한 감사를 받다.

WMU Program Glance (2018-2019)

- 연방정부 인가 프로그램
- 연방정부 Grant 무상교육 (유자격장에 한함)
- 온라인 프로그램 캠퍼스 프로그램 및 Hybrid 프로그램으로도 수강 가능
- 본교 목회학석사 진학시 50% 장학지원 및 추가 전입학점 인정 (수업 연한 단축)

		전공 학과 Programs		평균 수학 연한 Average Completion Periods	진로 Designed for	프로그램 장점 Program Highlights	수업 방법 Methods
대학	AABS	성서학과		60 학점 (2~3년)	진학 주일학교 교사	신학과 성경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주일학교 교사로 훈련	캠퍼스 온라인
	AACC	기독교 상담학과		60 학점 (2~3년)	진학 목회상담 후보생	기초적인 기독교상담학의 사역자로 훈련	
	BABS	성서학과	기독교 사역	126 학점 (4~6년)	목회, 선교, 군종 후보생	영성과 인성 개발을 통해 기독교 사역자로 훈련	
			교육		기독교 교육, 유아 교육	영·유아 교육 및 교회 안과 밖의 기독교 교육 담당	
	BACC	기독교 상담학과	기독교 상담	126 학점 (4~6년)	기독교상담학 기초 정립	교회 내 상담사역 및 대학원 진학 준비	
			가정생활 교육		가정생활교육 개발 설계	교회 내 실행 가능한 가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설계	
	BAM	음악학과		126 학점 (4~6년)	반주자, 찬양사역자	성악, 기악, 키보드, 기타, 드럼, 작곡 전공의 음악사역자 양성	캠퍼스
대학원	M.Div	목회학과		88 학점 (3~4년)	목사, 선교사, 군목, 교목, 원목, 평신도 지도자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신학과 인격의 훈련, 이민목회와 선교사 사역 기술 습득	캠퍼스 온라인
	MAT	신학과		48학점 (2~3년)	목회자, 성경연구원, 평신도 지도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신학적 사상과 흐름을 파악하여 바른 성경적 가치관 습득	
	MACC	기독교 상담학과		47 학점 (2~3년)	기독교 상담사역자 전문 상담사	신학과 상담의 통합적 접근, 한국복음주의 상담학회가 수여하는 기독교상담사 자격증 취득 준비	캠퍼스 온라인
	MAM	음악학과		44 학점 (2~3년)	지휘자, 반주자, 찬양사역자, 교회음악지도자	체계적인 음악교육과 철저한 신앙교육, 클래식 연주자와 교회음악 사역자 양성	캠퍼스
	D.Min	목회학 박사		34 학점 (3~6년)	담임목사, 선교사, 원목, 군목, 특수 목회, 강사, 교수	전문 사역 분야의 개발을 위한 최고 학위 과정, 현장 조사와 연구를 통한 목회 지도력 향상	캠퍼스 온라인
	DCM	교회음악학 박사		48 학점 (3~6년)	지휘자, 반주자, 찬양사역자, 교회음악지도자, 교수	복음적인 교회음악 전문사역자와 사회음악 전문지도자 양성	캠퍼스
수료증	NGO	NGO/NPO 사역자		5 학점	비영리단체 사역자	비영리단체 사역을 통해 전략적 선교에 다가가도록 훈련	온라인
	ECE	유아교육 교사		12 학점	유아교육 교사	유아교육 교사 양성	
		유아교육 원장		15 학점	유아교육 원장	유아교육 원장 양성, 유치원 설립	
	FCC	가정상담 사역자		18 학점	가정상담 사역자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가정상담 사역자 양성	
	WCC	WMU 상담교실		12주, 2학기	기독교상담 사역자 교회상담 사역자	그리스도인의 인격 성장과 인간관계, 하나님 형상 회복과 영적 성장을 돕는 훈련	캠퍼스
	WBA	WMU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 한권, 히브리어/헬라어 10주, 매 학기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바른 성경 해석학적 기초 위에서 성경의 원래 의미를 밝히는 훈련	

ATS는 신학대학원의 인가를 취급하는 공인된 최정상의 인가기관으로, 고등교육 인가기관(CHEA)과 미연방교육부(USDE)에 등록되어 있다. ATS의 기본 목적은 북미지역에서 신학교육의 질적인 유지 및 개선을 조성하고 지지해 주는데 있다.

ATS 인가 과정 발자취

① 2013년 4월 ATS 정회원 인가를 위한 감사받다.
② 2013년 6월 ATS Full Membership Status (정회원 자격) 취득하다.
③ 2015년 6월 목회학 석사과정(MDiv) Residential Exception(온라인) 인가받다.
④ 2016년 2월 기독교 상담학 석사과정(MACC) Residential Exception(온라인) 인가받다.
⑤ 2017년 2월 교회음악학 박사과정(DCM) 인가받다.
⑥ 2017년 2월 기독교 상담학 석사과정(MACC) OC Instructional Site(분교) 인가받다.
⑦ 2018년 3월 ATS 재인가를 위한 감사받다.

2006년 후보자 자격 심사 방문

2013년 정회원인준 배너

2013년 정회원인준 감사예배 1

2018년 정회원 재 인준 감사팀 방문

2013년 감사팀 방문

2013년 정회원인준 기자간담회

2011년 감사팀 방문

2013년 정회원인준 감사예배 2